



전은 지역사회봉사단, 고창자봉센터에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폭염에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고창군자원봉사센터에 지역사랑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박춘원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18일 고창임시터마널에서 고창군자원봉사센터와 지역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쿨(COOL)한 여름나기 안전센터 사업에 사용된다.

고창군자원봉사센터는 성금을 활용해 8월 한 달간 고창임시터마널에서 폭염대비 안전센터를 총 10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창군 14개 읍·면의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생수와 이온음료 분발 등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물품도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의회, 남원사회복지관서 배식 봉사 나서

남원시의회(의장 함명숙)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남원사회복지관 식당에서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쳐며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명숙 의장을 비롯해 오창숙 의원, 최형욱 의원, 전인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해, 복지관을 찾은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70여 명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정성껏 식사를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또한 강정아 관장을 비롯한 복지관 종사자 14명과 시설 현황 및 주요 사업인 지역사회돌봄(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례관리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부노인복지관에 남원축협 삼계닭 등 후원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최근, 말복을 맞아 남원축협(조합장 한정석)으로부터 삼계탕 200마리와 삼계탕용 약재 200개, 수박 10통을 후원받아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복(福) 가득! 더위 가고 건강 오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원축협은 지난해에도 삼계탕 100마리와 약재를 후원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힘을 보탠 바 있으며, 올해는 삼계탕 후원 수량을 200마리로 확대하고 수박 10통을 추가로 전달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사매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물품 전달

남원시 사매면은 최근,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와 거동 불편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관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찾아가는 그낭드림'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낭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서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 1인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고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 등 3~5개 품목을 2인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한편 사매면 맞춤형복지팀은 푸드뱅크 직접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한편,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 등 안부를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내고장 장수 천천면을 잘 사는 곳으로’

장수 천천사랑 전국 트로트가요제 성료… 이동재씨 ‘대상’ 영예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지부가 주관하는 ‘장수 천천사랑 제4회 전국트로트가요제·문화예술콘서트’가 지난 15일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장수 천천사랑 전국트로트가요제·문화예술콘서트는 장수군 및 천천면 관광 활성화를 잘 사는 고장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장수군(췌)장수 타엔시 재전 천천면 향우회, 원진 알미늄 백송회관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서는 김양욱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회장과 박창군 장수 타엔시 대표이사, 손병영 (주)서광 수출포장 대표이사, 황금석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장 김을만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장수군 지부장 이현원 천천면장, 박정용 장계농협 조합장, 박정용 천천면 이장 협의회장, 채규남 천천면 노인회장, 이성길 천천면 체육회장 등 임원들과 천천면민들이 참석했다.

예선에 참가한 51명 중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11명이 이날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가요제에서 대상의 영예는 이동재(전주)씨에게로 돌아갔다. 정민(익산)씨는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운경(나주)씨와 신현균(목포)씨는 우수상을, 전기현(군산)씨와 김부열(광주)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으며, 조명환(익산)씨와 류종필(목포)씨는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박두희(완주)씨와 서태룡(구미)씨는 인기상을, 서홍기(장수)씨는 한토상을 수상받았다.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정순임씨가 국회의원 표창을, 박창군씨가 장수군수 표창을, 손병영씨가 장수군의회 의장 표창을, 조범석씨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을, 한송이씨가 천천면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탈레스코리아 ‘STEM for ALL’ 국내 첫 장학생 배출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서유정 학생

대학-탈레스 그룹 인재양성 협약 첫 성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첨단방위산업학과 재학생 1명이 글로벌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 탈레스코리아(Thales Korea)가 운영하는 ‘STEM for ALL’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선발의 주인공은 첨단방위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서유정 학생(사진)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난 4월 전북대와 탈레스 그룹이 체결한 글로벌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인재양성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학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멘토링, 인턴십 등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난 5월에는 프랑수아 파올레(François POULET) 탈레스코리아 대표가 전북대를 방문해 학생 대상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산학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STEM for ALL은 탈레스 그룹이 운영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과 기업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1년간



탈레스 임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 전문가와의 교류 경험을 쌓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진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장학생 선발은 전북대와 탈레스코리아의 협력이 실질적인 인재양성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장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멘토링과 인턴십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방산·우주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탈레스와의 협력은 전북대의 첨단방위산업 특성과 전략과 글로벌 산학협력 확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학생들이 세계적 기업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글로벌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국내 최초로 첨단방위산업학과 학부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기업 및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의 장학 프로그램, 멘토링, 인턴십, 채용연계 MOU 체결 등을 확대하며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든든한 동행 되다

남원시는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동반자팀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민간 후원자원을 연계하고, 진로와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종찬 청소년동반자팀 상담원은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A의 경제적 어려움과 IT 분야에 대한 진로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결과는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100만원과 세이브더칠드런 위기가동지원금 130만원 등 총 230만원의 후원금을 연계했다.

후원금은 청소년 A가 IT 분야를 학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마련하는 데 활용됐으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과 가구도 함께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성민 상담원도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B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을 살피고 초록우산 생활지원금 150만원을 연계해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청소년 A는 “컴퓨터가 없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는데 이번 지원으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



어 감사하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일신 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개개인의 어려움과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폭염 속 컨테이너 거주 어르신, 전주 로타리클럽 도움으로 에어컨 설치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전주시 삼천3동 주민센터는 최근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와 생활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던 중 에어컨과 선풍기 등 별도의 냉방시설 없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견했다.

특히 컨테이너는 여름철 외부 열기가 그대로 전달돼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고령의 어르신이 장시간 생활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다. 이에 삼천3동 주민센터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냉방시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주민센터의 요청에 전주로타리클럽 회장 임현우이 힘을 보태면서 해당 어르신의 거주 공간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삼천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냉방시설도 없이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전주로타리클럽에서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폭염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행정기관의 현장 중심 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민간자원이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삼천3동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2026 전북-원남성 청소년 교류’ 성황리 열려

(제)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원남성 쑤닝시 일원에서 열린 ‘2026 전북-원남성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원남성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우호 교류 지역으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2025년 원남성 인민대우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위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프로그램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방문단에는 군산제일중학교와 부안남중중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등 총 16명의 전북 청소년 방문단이 참가해 원남대학교 부속중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소풍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캠퍼스 투어, 학생 간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학교생활과 문화를 공유하고 글로벌 우정을 쌓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체험형 융합 교류로 알차게 구성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글로벌 시민의식과 국제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오만호 기자



정읍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마무리

전 세계에서 모국을 찾은 한인 청년과 국내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정읍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2026 차세대동포(청년) 모국 초청연수의 세 번째 정읍 방문 일정을 끝으로 올해 지역 연계 연수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했다.

정읍 방문은 지난 7월 17일 첫 일정을 시작으로 7월 31일과 8월 14일 모두 세 차례 진행됐다. 세계 각지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과 국내 대학생들은 함께 정읍을 둘러보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서로 교류했다.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아 혁명의 역사와 민주정신을 되새겼다. 영상예술 작품을 관람하고 전통예절과 산비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정신과 정읍의 문화적 뿌리를 익혔다.

단순히 유적지를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현장에서 모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과정을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재외동포 청년과 국내 대학생들이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종교계 “개종 강요는 인권침해”

종교계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개종을 명목으로 한 강압적 행위가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개종 강요 교육 폐해 규탄 및 종교의 자유·인권보호 촉구대회’가 최근 전주 베스텍스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종교인 연합지도자회 공동 주최로 목회자와 종교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개종 강요와 관련한 누적 피해자는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치·감금 1200여 건, 폭행 900여 건, 협박 800여 건 등이 포함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행사 결의문을 통해 △개종을 목적으로 한 감금·폭행·협박 등 불법행위 중단 △정부·수사기관의 실태조사와 관련자 처벌 △피해자 보호·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마련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종교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 지속 등을 요구했다. /전주=김기두 기자